2013학년도 모의논술 모범답안 - (2)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소통과정에 있어서 언어가 발화자의 의도를 문맥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시문 A>는 문맥의 파악 없이도 언어가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언어가 단어와 문장 구성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논리적 체계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진다. 논리성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언어는 명확한 표현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오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제시문 B>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어는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문맥은 발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담화문맥, 즉 발화자의 의도를 무시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문맥과 의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정확한 간파를 할 수 있다. 언어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자료 1)은 <제시문 A>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지문 모두 소통 과정에서 문맥의 파악 없이도 언어는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료 1)은 단어가 문장을 이루므로 단어의 연결만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번역이라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맥의 파악 없이 대응되는 단어의 대치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제시문 A>가 언어는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체계이므로 문맥의 파악 없이도 소통 수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부합한다.

이에 반해 (자료 2)는 <제시문 B>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옳다. 두 입장 모두 문맥의 파악 없이는 언어가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료 2)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그래프 상의 수치만 보면 두 국가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B>가 구체적인 상황, 즉 맥락을 무시하면 결과의 왜곡이 생기고 원래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를 분석하고, (자료 4)에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자료 3)은 진정한 대화의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성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발화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려하는 존중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또한 대화의 내용이나 진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소통과 참여가 있어야 만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 4)를 봤을 때, (자료 4)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과거 상황에 대해 기분 나쁨과 절망감,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낯선 사람은 적의 추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료 안의 대화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대답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대화라는 점에서도, 상호성이 없으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4)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진정한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제시문에 등장한 낯선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서로를 파악한 후, 자신이 무슨 의도를 갖고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밝히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요구한, 대화가 아닌 대답만을 듣고 한 번에 상대를 파악하면 안 된다.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의 ‘나’와 ‘어머니’ 역시 대화에 참여해 스스로의 의견과 생각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상호성이 진정한 대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